

경기북부, 지난해 수출 4.3% ↑



항구에서 수출 대기 중인 컨테이너 모습.

어려운 대내외 무역환경 속에서도 경기북부가 지난해 4.3%의 수출 증가를 기록하며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경기북부 2017년 수출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198.3억 달러, 수입은 6.4% 증가한 132.9억 달러, 무역수지는 65.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총수출은 5737억 달러(15.8% ↑), 총수입은 4784억 달러(17.8% ↑)를 기록하면서 무역 1조 달러를 재달환했다.

경기북부 수출증가가 국내 총수출의 두 자릿수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대중국 수출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사드제재 등 직

격탄을 맞은 것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2016년 대중국 수출은 82.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를 기록했으나, 2017년에는 79.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출주력 품목인 평판디스플레이(2.2%)와 반도체(-2.2%)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소폭 둔화했다. 화장품(23.5%)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평판디스플레이와 센서, 반도체에 이어 수출 3위를 유지했고 철강관 및 철강선(98.7%)이 높은 상승을 기록하며 수출 4위를 기록했다. 자동차(-1.5%) 및 자동차부품(-12.2%)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반면 기타기계류(35.4%)와 패션잡화(259.9%)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한편 대중국 무역은 사드제재 등의 여파로 월별 수출 감소 폭이 25.7%까지 치솟았으나 하반기부터 양국 관계에 해빙 기류가 흐르고 수출 감소 폭이 둔화하며 2017년 수출은 3.2% 감소하는 데 그쳤다.

수입의 경우 상반기부터 꾸준히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8월에는 대중국 수입 비중이 30% 선을 밑돌기도 했으나 11월, 12월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서 40%대를 상회하며 2017년 수입은 2.7% 상승 마감했다.

고성철 기자 imnews656@



지난 1일 농업나주축산물 공판장에서 전남 함평축협이 함평천지한우의 홍콩/마카오 수출 첫 해의 선적식을 진행하고 있다. 함평군청 제공

함평천지한우 홍콩·마카오 수출 '첫' 선적

월 2톤, 연 24톤 수출 예상

함평천지한우가 홍콩과 마카오에 수출된다.

전남 함평축협(조합장 임희구)은 지난 1일 농업나주축산물 공판장에서 임희구 함평축협 조합장과 임원, 박대선 농업전남지역본부장, 수출업체 대표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천지한우의 홍콩 및 마카오로 수출 첫 해의 선적식을 가졌다.

축협이 (주)CJLI와 해외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1차로 무항생제 한우 냉장육 full-set(++1등급 +1등급) 2마리 분량을 선적한 것.

함평천지한우는 홍콩·마카오 현지 대형유통사 PARK n SHOP에 납품 판매될 예정이다. 함평축협은 월 2톤 연 24톤의 수출을 예상하고 있다. PARK n SHOP은 홍콩 현지 내에 300개 이상의 매장과(2015년 기준) 250만명 이상의 멤버십 회원을 확보(2012년 기준)하고있는 대형 소매업체다.

함평군은 이번 수출이 해외 바이어(ORIOLE-food)와 한우 브랜드간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전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함평축협은 150여명의 회원농가에서 1만 6500여두의 고급육 한우를 환경 친화적으로 사육하고 있다. 특히 함평축협은 자체 운영하는 TMR사료(완전혼합사료) 공장에서 생산된 맞춤형 사료를 급여해 한우고기 고급육 등급 출현율 90%(전국평균 86%)에 이르는 등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함평천지한우가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회 연속 소비자 시민도움의 우수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했다.

임희구 조합장은 "이번 홍콩·마카오 수출을 계기로 적극적인 해외 공략을 펼쳐 명품한우 브랜드로서 함평천지한우의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판로 개척으로 조합원의 안정적인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남규 기자 diskarb@

서울 중구, 지난해 짝퉁 판매 24% 줄어

단속 통해 짝퉁 12만8천여점 압수

지난해 동대문패션타운, 남대문시장, 명동 등에서 적발된 위조상품(이하 짝퉁) 판매가 2016년 대비 24% 감소했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해 이 일대를 중심으로 186회에 이르는 집중 단속을 벌여 짝퉁 판매 및 유통행위 392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정품시가 353억 원에 해당하는 짝퉁 12만8000점을 압수했다. 역대 최고 단속실적을 거뒀던 2016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517건에서 125건이 줄었다. 압수 물량의 정품 시가도 460억 원에서 107억 원 감소했다.

다만 전체 압수물량은 2016년 5만3000점에서 7만5000점이 늘었다. 이는 지난해 망우동, 화양동 등 보관창고와 동대문패션타운 도매상가 내 비밀창고를 급습해 10만 점이 넘는 명품 짝퉁의 류와 전지, 라벨 등 의류 부자재, 제작기계를 압수했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하면 노점, 점포 등에서 판매 적발로 압수한 물량은 2만8천 점으로 2016년의 4만2000점보다 1만4000점 감소했다.

중구 유통질서정비팀 관계자는 "단순 판매행위는 기본이고 보관창고와 제조공장까지 끈질기게 파헤치는 단속이 효과를 내면서 전반적인



서울 중구청이 압수한 '짝퉁' 모습. 서울중구청 제공

감소로 이어진 것"이라며 "동대문 일대 노점과 상가에 짝퉁을 공급한 운반 차량을 수차례 적발해 여기서만 1000여 점을 압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중구는 짝퉁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동대문 일대 의류 상가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수입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이른바 '라벨갈이'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비록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완전 근절까지는 계속 전진을 치러야 한다"면서 "지난 5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단속의 고평을 놓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속 의지를 밝혔다.

김수진 기자 neunga@



젖소 농장에서 착유기를 이용해 착유하고 있는 모습.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 '낙농헬퍼 지원사업' 11억 4000만원 투입

경남도가 낙농가의 생산성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11억 4000만원을 투입한다.

낙농헬퍼(도우미) 지원사업은 낙농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헬퍼요원'로 선정해 사회활동에 애로를 겪는 낙농가에 갑작스런 상황 발생 시 대처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15개 시군 젖소농가를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2명 늘린 38명의 낙농헬퍼요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낙농헬퍼가 하는 일은 착유, 사료급여, 우사청소, 분만·치료 보조 등이며 낙농헬퍼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관할 시군 낙농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필요시 지원 요청하면 된다.

양진운 경남도 축산과장은 "낙농가의 돌발적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농가의 복리증진과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

길 바란다"며 "앞으로 낙농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낙농헬퍼 지원사업은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247농가가 참여해 낙농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낙농가의 근로여건 개선으로 젖소 사육의지 고취와 사회활동 동기 부여는 물론 낙농 2세 경영 참여의욕 제고로 도내 낙농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옥성 기자 chos66@

경기북부2차 테크노밸리

양주시가 경기도와 함께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습니다.

양주역